

# 越窯의 消滅에 관한 몇 가지 問題

이 희 관\*

- I. 머리말
- II. 越窯의 消滅時期
- III. 越窯 消滅의 原因 -특히 瓷器製作技術의 觀點에서-
- IV. 餘言 -南宋時期的 越窯에 대한 斷想-

## I. 머리말

越窯는 後漢代에서 宋代에 걸쳐 거의 천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청자를 생산해온 대표적인 窯場이다. 唐宋代에 이 요장에서 생산한 秘色瓷가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월요가 남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의 어느 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본고는 이러한 월요의 소멸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각별히 그 시기와 원인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월요 소멸의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분명하게 해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예컨대,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남송초기설과 남송중기설이<sup>2</sup>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 前 湖林博物館

1 李剛, 「論越窯衰落與龍泉窯興起」, 『越窯論集』(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88), p. 91; 沈岳明, 「越窯概論」,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 10; 唐煒, 「試論唐宋越窯的性質」,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p. 43-44.

2 慈溪市博物館 編, 『上林湖越窯』(科學出版社, 2002), p. 161; 權奎山, 「試論越窯的衰落」, 『故宮博物院院刊』 2003년 제5기, pp. 49-52.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지만,<sup>3</sup> 엄밀하게 말하면, 결과론적인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월요의 소멸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는 所以然이다.

## II. 越窯의 消滅時期

월요의 소멸시기에 대하여 견해를 제출한 연구자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남송 중엽에 저술된 서로 다른 특정한 문헌기록에 의지하고 있다. 開禧 2년(1206)에 成稿된<sup>4</sup> 『雲麓漫鈔』와 嘉定 5년(1212)을 전후한 시기에 撰述된 것으로 여겨지는<sup>5</sup> 『坦齋筆衡』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 그것들이다.

(A) 青瓷器, 皆云出自李王, 號秘色, 又曰出錢王, 今處之龍溪出者色粉青, 越乃艾色.<sup>6</sup>

(B) 宋葉實『坦齋筆衡』云……中興渡江, 有邵成章提學後苑, 號邵局, 襲故京遺製, 置窯于修內司, 造青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油色瑩徹, 爲世所珍. 後郊壇下別立新窯, 比舊窯大不侔矣. 餘如烏泥窯·餘杭窯·續窯, 皆非官窯比, 若謂舊越窯, 不復見矣.<sup>7</sup>

『雲麓漫鈔』에 따르면, 당시(“今”) 處州의 龍溪(龍泉)에서 생산한 靑瓷은 색깔이 粉靑色이고, 越州에서 생산한 것은 艾色을 띠다고 하였다(史料A). 월요가 남송 중엽경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근거로, 『雲麓漫鈔』가 쓰여진 1206년 무렵에도 월요에서 청자를 생산했다고 주장한다.<sup>8</sup>

<sup>3</sup> 월요 소멸의 원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剛, 앞의 논문; 沈岳明, 앞의 논문(2002); 周麗麗, 「關於越窯盛燒, 衰弱及其形成原因的幾點認識」,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權奎山, 앞의 논문; 徐定寶, 「越窯靑瓷衰落的主因」,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2년 제6기; 林士民, 「越窯衰落原因的探索」, 『2007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文物出版社, 2008); 白亞松, 「試析越窯衰落的原因」, 『陶瓷學報』 제32권 제2기(2011) 등이 있다.

<sup>4</sup> 『雲麓漫鈔』에는 開禧 2년(1206)에 쓴 趙彥衛의 自序가 있다. [宋]趙彥衛撰, 傅根清點校, 『雲麓漫鈔』序, 唐宋史料筆記叢刊本(中華書局, 1996).

<sup>5</sup> 『坦齋筆衡』의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鄭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p. 49-50 참조.

<sup>6</sup> [宋]趙彥衛撰, 傅根清點校, 앞의 책, p. 171.

<sup>7</sup>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中華書局, 1959), p. 363.

<sup>8</sup> 慈溪市博物館編, 앞의 책, p. 161; 權奎山, 앞의 논문, p. 51.

그러나 『雲麓漫鈔』보다 몇 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坦齋筆衡』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실려 있다. “若謂舊越窯，不復見矣”가 그것이다(史料B). 월요가 남송 초기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坦齋筆衡』이 쓰여질 당시 월요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sup>9</sup> 반면에 그들은 『雲麓漫鈔』에 보이는 기록은 신뢰하지 않는다. 월요가 남송 중엽경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雲麓漫鈔』와 『坦齋筆衡』에 보이는 기록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들과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연 두 기록 가운데 어느 한쪽은 그릇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월요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전하는 이 기록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월요의 소멸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초적인 의문들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雲麓漫鈔』에 보이는 기록(史料A) 가운데 월요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대목은 “今處之龍溪出色粉青，越乃艾色”이다. 여기에서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대목의 후반부에 보이는 월요청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별 다른 의심 없이 이 대목이, 용천요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今”)의 월요청자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雲麓漫鈔』가 成稿된 1206년경까지는 월요가 청자를 생산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이 대목의 맨 처음에 나오는 “今”이 修飾하는 대상이 용천요청자만인가, 아니면 용천요청자와 월요청자 모두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후자의 입장에서 이 대목을 이해한 셈이지만,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양자 모두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전자의 입장에서 서면, “越乃艾色”은 1206년경에 제작된 월요청자의 색깔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까닭이 없다. 이 경우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되어온 월요청자의 일반적인 색깔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연 “越乃艾色”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와 같이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越乃艾色”은 사실상 “今越乃艾色”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지금 越州에서 제작되는 청자는 그 색깔이艾色이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해할 경우 역사적 사실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越州는 紹興元年(1131)에 紹興府로 승격되면서 그 관할구역은 더 이상 越州로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0</sup> 1206년경에 越州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지역에서 1206년경에

<sup>9</sup> 沈岳明, 앞의 논문(2002), p. 9; 唐煒, 앞의 논문, pp. 43-44.

<sup>10</sup> [元]脫脫等撰, 『宋史』卷26 本紀 高宗 紹興 元年 10월 己丑, 中華書局標點本(新華書店上海發行所, 1977), p. 491.

청자를 생산하고 있었고 아울러 그 청자를 묘사하려 하였다면, 의당 그産地를 칭할 때 당시의 명칭인 紹興府나 좀 더 구체적으로 紹興府 餘姚縣으로 칭했을 것이다.<sup>11</sup> 이러한 견지에서 “越乃艾色”를 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결국 “越乃艾色”은 1206년경에 제작된 월요청자의 색깔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되어온 월요청자의 일반적인 색깔을 언급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보면, 『雲麓漫鈔』의 해당 기록이 월요의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坦齋筆衡』에 보이는 기록에 눈을 돌려보기로 하자(史料B). 이 기록 가운데 월요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목은 “若謂舊越窯, 不復見矣”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월요가 남송 초기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이 대목을 『坦齋筆衡』이 쓰여질 당시 월요가 이미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즉 그 시기에 월요는 이미 소멸되었다는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的確한 이해라고 보기 힘들다. 『坦齋筆衡』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越窯가 아니라 “舊越窯”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舊越窯”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이 대목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舊越窯”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월요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坦齋筆衡』을 저술할 당시 월요는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坦齋筆衡』이 저술될 당시의 월요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어느 시기의 월요를 지칭한 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舊越窯”는 이미 없어졌지만, 越窯 자체는 『坦齋筆衡』이 저술될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舊越窯”를 전자의 방식으로 파악하여왔다. 하지만 『坦齋筆衡』의 내

<sup>11</sup> 혹 越州가 紹興府로 승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 지명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하였을까? 『雲麓漫鈔』에는 嘉泰 2년(1202)에 山陰縣에서 발견된 古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山陰縣은 이 지역이 紹興府로 승격하기 전에는 越州에 속해 있었다. 여기서도 趙彥衛는 山陰縣을 紹興府 소속으로 명시하였다(〔宋〕趙彥衛撰, 傅根清點校, 앞의 책, p. 87: “嘉泰二年六月, 紹興府山陰農人, 闢地得古碑於黃朔岡, 字十行, 云……”). 한편, 『宋會要輯稿』에는 越州가 紹興府로 승격되고 난 후의 월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明堂大禮에 사용할 陶質祭器의 제작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도 紹興府 餘姚縣에 명령을 내려 陶質祭器를 燒成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清〕徐松輯, 『宋會要輯稿』禮 24之86-88(中華書局, 1957): “紹興四年四月六日, 禮部太常寺言, ……昨紹興元年明堂大禮, 紹興府燒變製造到殿上正配四位祭器, 并文思院鑄造到牛羊豕鼎等, 昨紹興府沿火燒毀不存, 今來開坐到祭器名件, 并合創造, 乞令太常寺圖畫樣製, 下兩浙轉運司所屬州軍均攤製造, 所有陶器, 乞下紹興府餘姚縣燒變, 并乞于大禮前十六日起發赴太常寺送納, 內系鑄造銅器仍乞工部下文思院鑄造施行……, 詔, 陶器令紹興府餘姚縣燒變, 餘令文思院製造, 餘從之.”). 나아가, 寡聞한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紹興府를 옛 지명, 즉, 越州로 칭한 예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越州가 紹興府로 승격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越州로 불리기도 하였을 실제적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도1 低嶺頭窯址 全景(필자 촬영)

대 『坦齋筆衡』의 기록 역시 『雲麓漫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요의 구체적인 소멸시기를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월요의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문헌기록으로 여겨져온 『雲麓漫鈔』와 『坦齋筆衡』의 기록이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集積된 고고학적 자료에 눈을 돌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월요의 소멸기에 해당하는 남송시기에 청자를 제작하던 월요요장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古銀錠湖 주변의 低嶺頭·開刀山·寺龍口·張家地 등에 있는 몇몇 요장에서만 그 시기에 청자를 제작하였을 뿐이다.<sup>12</sup> 이 가운데 低嶺頭窯址가 가장 전형적인 요지로 알려져 있다(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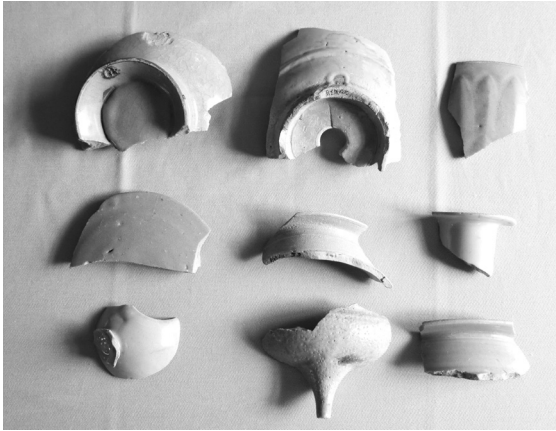
도2 低嶺頭類型(전통적인 越窯型靑瓷), 低嶺頭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필자 촬영)

용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후자의 가능성을 부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若謂舊越窯, 不復見矣”를 근거로 『坦齋筆衡』이 쓰여질 당시 월요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요컨대

저령두요지는 1990년에 試掘된 바 있는데, 이 요지 퇴적층의 상층에서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청자가 출토되었다.<sup>13</sup> 그 한 부류는 전통적인 월요의 기형과 유색과 문양을 가진 청자들이다(도2). 이 부류는 다시 비교적 거칠게 제작된 것과 精細하게 제작된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匣鉢을 씌우지 않고 燒成한 것이 대부분이고, 유색은 靑黃色이나 灰黃色 계통이며, 주로 刻花紋樣

<sup>12</sup> 沈岳明, 「修內司窯의 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 『中國古陶瓷研究』 제4집(1997), p. 84.

<sup>13</sup> 沈岳明, 앞의 논문(1997), pp. 84-86.



도3 低嶺頭類型(“官窯型產品”), 低嶺頭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필자 촬영)

이 새겨져 있다. 반면에 후자는 갑발을 씌워서 燒成하였고, 유색은 靑綠色 계통이며, 북송 초기의 월요청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細線劃花紋樣이 주로 施紋되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기형이나 유색 및 裝燒工藝 등이 전통적인 월요청자와는 크게 다른, 오히려 汝窯나 南宋官窯 제품과 風格이 유사한, 이른바 “官窯型產品”이다(도 3).<sup>14</sup> 이 부류는 유색이 일반적으로 天靑色이나 粉靑色 그리고 月白色 등을 띠고, 釉層이 전통적인 월요청자의 경우보

다 상대적으로 두꺼우며, 失透性이 강하다. 문양이 거의 없는 것도 이 부류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저령두유지 퇴적층의 상층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유형의 청자들은 흔히 “低嶺頭上層類型”으로 칭하거나 간략하게 “低嶺頭類型”으로 부른다. 결국 저령두유형의 下限이 곧 월요의 소멸시기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항주에 있는 남송시기의 皇城 부근에서 다량의 저령두유형 자료들이 수습되어<sup>15</sup> 이 유형의 하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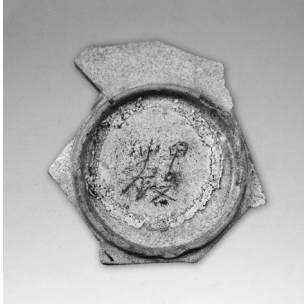
이곳에서 수습된 저령두유형은 남송시기에 월요에서 宮廷용으로 제작하여 進供한 것들이다. 이 자료들의 경우, 外底部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성하기 전에 새긴 것도 있고(前刻), 소성한 후에 새겨 넣은 것도 있다(後刻). 현재까지 확인된 명문으로는 “甲申殿”(도 4)·“進”·“德□”(도 5)·“御廚”·“苑”·“後苑”·“殿”·“貴妃”·“慈寧殿”(도 6)·“皇后殿”·“司”·“上”·“≡(坤)”·“翟貴”·“奉甲” 등이 있다.<sup>16</sup> 이 가운데 “德□”銘이 있는 자료는 저부의 1/4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나머지 한 글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획 등으로 미루어 “壽”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7</sup> 이렇게 복원하면, 이 명문은 “德壽”가 되는 셈이다. 항주에서는 “德壽”銘이 後刻

<sup>14</sup> “官窯型產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沈岳明, 앞의 논문(1997), pp. 84-86; 慈溪市博物館編, 앞의 책, pp. 153-157; 沈岳明, 『低嶺頭類型再認識』,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p. 81-8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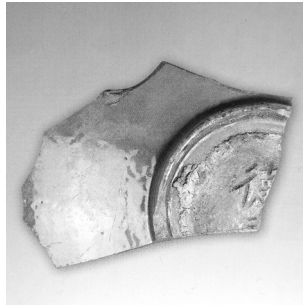
<sup>15</sup> 앞의 註1) 참조.

<sup>16</sup> 명문이 새겨진 저령두유형의 출토상황은 註1)의 논문들 및 杭州南宋官窯博物館編, 『清·雅-南宋瓷器精品』(中華書局, 2010), pp. 157-159 참조.

<sup>17</sup> 金志偉·胡雲法·金軍, 『南宋宮廷所用越瓷的幾個問題』,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 76.



도4 “甲申殿”銘越窯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圖版貳의圖7)



도5 “德壽”銘越窯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圖版參의圖9)



도6 “慈寧殿”銘越窯碗(『清·雅-南宋瓷器精品』, p. 157)

된 여러 점의 정요백자가 수습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8</sup> 이 명문들 가운데 저령두유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慈寧殿”銘과 “甲申殿”銘과 “德壽”銘인데, “甲申殿”銘은 前刻된 것이고, 나머지는 後刻되었다.

慈寧殿은 高宗의 母后인 韋太后가 紹興 12년(1142)에 金으로부터 돌아와서 紹興 29년(1159) 崩御할 때까지 기거한 곳이다.<sup>19</sup> 그러므로 “慈寧殿”銘 월요청자의 제작시기도 1142-1159년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0</sup> 甲申殿은 문헌기록에 보이지 않는 남송시기의 궁전 이름인데, “甲申”이 干支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甲申”에 대해서는 高宗이 韋太后가 70세가 된 것을 慶賀하는 예를 거행한 紹興 19년(1149) 정월 초하루(甲申朔)를 가리킨다는 주장과<sup>21</sup> 太廟에 齋殿을 설립한 紹興 19년(1149) 5월 甲申日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는데,<sup>22</sup>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그 해가 1149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甲申殿”銘 월요청자는 1149년이나 그 직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sup>18</sup> 胡雲法·金志偉, 「定窯白瓷銘文與南宋宮廷用瓷之我見」, 『中國古代白瓷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上海書畫出版社, 2005), pp. 287-296.

<sup>19</sup> 徐吉軍, 『南宋都城臨安』(杭州出版社, 2008), 61-62쪽.

<sup>20</sup> 한편, 沈岳明과 金志偉는 “慈寧殿”銘이 後刻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늦어도 慈寧殿이라는 宮闈名稱이 사용되던 29년(1159)경까지는 월요가 소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때까지 월요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굳이 그 월요청자에 그것을 사용한 궁궐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까닭이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沈岳明, 앞의 논문(2002), p. 10; 金志偉, 「“進”字款越瓷考證」, 『故宮博物院院刊』 2005년 제2기, p. 150).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남송관요가 자기를 생산하고 있던 남송시기에 그 사용처를 後刻한 적지 않은 남송관요자기의 실례들이 있기 때문이다(金志偉·胡雲法, 『南宋官窯刻款瓷器研究淺見』,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p. 208-213). 남송궁정용자기 가운데 그 사용처를 後刻한 예들은 주로 남송 전기에 사용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그 사용처를 後刻한 주요 원인은 그것들을 제작한 요장에 소멸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궁정용자기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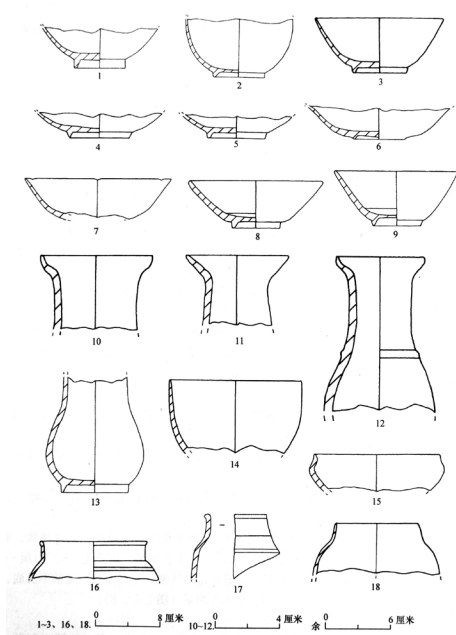
<sup>21</sup> 金志偉·胡雲法·金軍, 앞의 논문, p. 75.

<sup>22</sup> 沈岳明, 앞의 논문(2004),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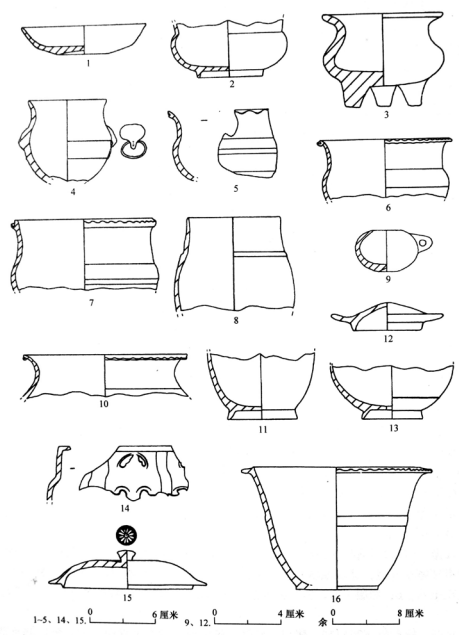
판단된다. “德壽”는 德壽宮을 지칭한다. 덕수궁은 고종이 紹興 32년(1162)에 효종에게 讓位한 뒤부터 淳熙 14년(1187) 崩御할 때까지 기거하던 곳이다.<sup>23</sup> 효종도 고종을 따라 淳熙 16년(1189)에 광종에게 讓位하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그 명칭을 重華宮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德壽”銘 월요청자는 1162~1189년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의 발굴 및 수습된 자료를 통하여 볼 때, “德壽”銘 월요청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월요청자 가운데 가장 시기가 늦은 것이다. 이 자료는 1162~1189년 무렵까지도 월요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 이후 언제까지 窯業을 계속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저령두유형의 기형적 특징 등을 통하여 볼 때, 그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開刀山窯址에서 수습된 膽式瓶을 비롯한 “官窯型產品”들이다(도 7·8).

膽式瓶은 口部가 盤口型이고 頸部가 굽고 긴 병으로, 남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에 출현한 기종이다. 開刀山窯址 출토품(도 7-10·12·13)은 장식과 문양이 없으며 釉의 失透性이 강한 전형적인 “관요형산품”이다.<sup>24</sup> 이러한 器形의 膽式瓶은 龍泉窯에서도 제작되었는데, 남송 중엽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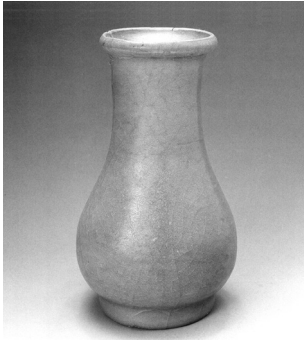
도 7 低嶺頭類型 “官窯型產品”, 開刀山窯址 출토  
(『上林湖越窯』,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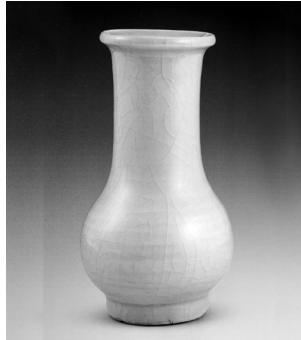
도 8 低嶺頭類型 “官窯型產品”, 開刀山窯址 출토  
(『上林湖越窯』, p. 156)

<sup>23</sup> 덕수궁의 연혁에 대해서는 徐吉軍, 앞의 책, pp. 76-8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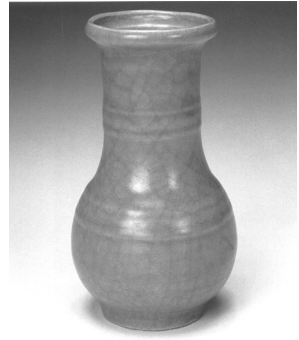
<sup>24</sup> 慈溪市博物館編, 앞의 책, pp. 153-155.



도 9 龍泉窯膽式瓶, 武漢市武昌區任晞晴墓(1213)출토, 湖北省博物館『龍泉窯青瓷』, p. 142



도 10 龍泉窯膽式瓶, 遂寧金魚村窖藏 출토, 遂寧市博物館『遂寧金魚村南宋窖藏』下冊, 圖版31)



도 11 龍泉窯膽式瓶, 德清市城關鎮吳奧墓(1268)출토, 德清市博物館『龍泉窯青瓷』, p. 143)

적인 武漢市武昌區任晞晴墓(1213)(도 9)와 남송 후기의 유적으로 판단되는<sup>25</sup> 遂寧金魚村窖藏(도 10)·簡陽縣東溪園藝場墓·德清市城關鎮吳奧墓(1268)(도 11) 등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sup>26</sup> 그런데 남송 중엽과 후기의 膽式瓶은 전체적인 기형은 비슷하지만, 腹部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腹部가 玉壺春瓶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球形에 가까워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開刀山窯址 출토품은 腹部를 포함한 전체적이 기형이 武漢市武昌區任晞晴墓 출토품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그 제작시기는 남송 중엽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窯址에서 수습된 花盆(도 8-6·7·13)은<sup>27</sup> 남송 중엽경에 제작된 것으로 믿어지는<sup>28</sup> 老虎洞修內司官窯址(H7) 출토품(도 12)과 기형이 유사하다.<sup>29</sup> 그리고 甬式爐는 開刀山窯址 뿐만 아니라(도 13) 寺龍口窯址와<sup>30</sup> 低嶺頭窯址에서도 발견되었는데, 遂寧金魚村窖藏(도 14)과 德清市城關鎮吳奧墓(도 15) 등 남송 후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과는 일정한 조형적 차이를 보인다.<sup>31</sup>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開刀山窯址에서 수습된 화반과 甬式爐도 남송 중엽경이나 그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sup>25</sup> 遂寧金魚村窖藏과 簡陽縣東溪園藝場墓의 年代에 대해서는 森達也, 「元代龍泉窯의 分期研究」, 『故宮學術季刊』 제29 권 제1기(2002), pp. 20-22를 참고하라.

<sup>26</sup>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 編著, 『遂寧金魚村南宋窖藏』 上冊(文物出版社, 2012), pp. 31-32; 四川城文物管理委員會, 「四川簡陽東溪園藝場元墓」, 『文物』 1987년 제2기, p. 71; 朱伯謙 主編, 『龍泉窯青瓷』(藝術家出版社, 1998), p. 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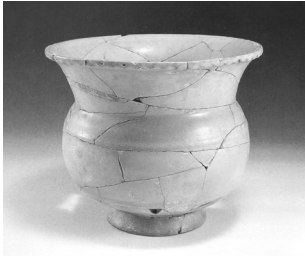
<sup>27</sup> 慈溪市博物館 編, 앞의 책, pp. 153-155.

<sup>28</sup>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요업시기에 대해서는 李喜寬, 「有關南宋後期官窯의 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 2009년 제3기, pp. 20-23; 「南宋前期官窯新探」, 『東方博物』 제35집(2010a), pp. 34-35 참조.

<sup>29</sup>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文物出版社, 2002), pp. 72-75.

<sup>30</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 358.

<sup>31</sup>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 編著, 앞의 책, pp. 12-13; 朱伯謙 主編, 앞의 책, p. 154.



도 12 南宋官窯花盆, 老虎洞修內司官窯址(H7) 출토, 杭州市文物考古所(『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p. 72)



도 13 越窯兩式爐, 開刀山窯址 출토, 慈溪市博物館(『上林湖越窯』, 彩版16-4)



도 14 龍泉窯兩式爐, 遂寧金魚村窖藏 출토, 遂寧市博物館(『遂寧金魚村南宋窖藏』, 下冊, 圖版9)



도 15 龍泉窯兩式爐, 德清市城關鎮吳奧墓(1268)출토, 德清市博物館(『龍泉窯青瓷』, p. 154)

필자가 저령두유형의 발굴품과 수습품들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 기형이나 장식 등의 측면에서 남송 후기 이후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2</sup>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령두유형의 하한은 남송 중엽경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월요의 소멸 시기도 남송 중엽경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 Ⅲ. 越窯 消滅의 原因

#### —특히 瓷器製作技術的 觀點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월요가 소멸하게 된 원인을 고찰할 때, 주로 남송시기의 월요의 상황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월요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월요는 남송시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의 요인들이 露呈되어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남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요업을 계속한 월요요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古銀錠湖 주위에 있는 몇몇 곳에 불과하다. 上林湖·白洋湖·古

<sup>32</sup> 權奎山도 앞서 검토한 開刀山窯址에서 출토된 “관요형산품”보다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된 월요청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權奎山, 앞의 논문, pp. 50-52).

銀錠湖·里杜湖 주위의 대부분의 월요요장들은 북송 후기에 이미 閉窯한 것이다.<sup>33</sup> 그러므로 월요의 소멸 원인을 찾기 위하여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의당 북송 후기-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 시기까지를 포함하여-의 월요요장의 상황이 될 것이다. 같은 시기에 월요와 경쟁관계에 있던 요장들, 예컨대 정요·요주요·여요·경덕진요 등의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북송 후기의 월요의 요업상황은 대표적인 월요요지 가운데 하나인 寺龍口窯址의 발굴결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4</sup> 이 요지의 북송 후기 층위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그 대부분의 유색이 靑灰色이거나 靑黃色 계통이다.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淡靑綠色 계통의 유색을 띤 것들은 드물다. 그리고 刻花紋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요주요의 영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요주요의 각화문에 비해 거칠고 또한 얇게 새겨서 문양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 시기에는 갑발에 한 개의 기물을 넣고 燒成하거나(匣鉢單件裝燒), 갑발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기물을 포개서 소성하였다(明火疊燒). 이렇게 소성한 기물들은 내저면에 지저분한 원형의 耐火土 흔적이 남아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다. 같은 시기에 북방의 많은 요장들과 경덕진요 등에서 유행한 覆燒法으로 소성한 기물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이전 시기의 월요의 기물들이나 경쟁관계에 있던 정요·요주요·여요·경덕진요 등의 기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렇다면 만당-오대시기에 최고 수준의 비색자를 제작하던 월요도공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왜 그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청자를 제작한 것일까? 월요도공들의 청자제작기술이 퇴보한 것일까? 아니면 요업환경이 악화된 때문일까? 이러한 요인들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瓷器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필수적인 재료인 유약과 태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월요의 경우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태토와 유약의 성분 구성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開窯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줄곧 상대적으로 SiO<sub>2</sub>의 함량이 높고 Al<sub>2</sub>O<sub>3</sub>의 함량이 낮은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남송시기의 일부 기물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TiO<sub>2</sub> 함량이 비교적 높은 石灰釉를 施釉하였다.<sup>35</sup>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월요의 태토와 유약이, 경쟁관계에 있던 여러 요장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기를 생산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sup>33</sup> 慈溪市博物館編, 앞의 책, pp. 110-113; pp. 161-162; p. 178; p. 195.

<sup>34</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外, 앞의 책, pp. 348-349.

<sup>35</sup> 李家治主編, 『中國科學技術史』陶瓷卷(科學出版社, 1998), pp. 116-126.



도 16 密封匣鉢, 寺龍口窯址 출토,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寺龍口越窯址』, p. 354)

전통적인 월요 유약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O_2$  함량이 비교적 높은데, 요주요나 여요의 유약의  $TiO_2$  함량이 일반적으로 0.1~0.3% 정도였던 데 반해서<sup>36</sup> 월요의 그것은 0.5% 이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1%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sup>37</sup>  $TiO_2$ 는 유약의 또 다른 구성성분인  $Fe_2O_3$ 과 결합하면 靑黃色 또는 靑灰色의 유색을 띠게 되며,<sup>38</sup>  $TiO_2$ 의 함량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심화된다. 월요의 전통적인 유약은 요주요나 여요 등의 유약에 비해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淡靑綠色이나 天靑色 계열의 유색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sup>39</sup>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유약에 포함되어 있는 Fe 성분의 還元率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높여서  $Fe_2O_3$ 의 함량을 줄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주요나 여요의 유약과 같이  $TiO_2$ 의 함량 자체가 낮은 유약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월요도공들은 전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략 晚唐 후기에 갑발과 갑발 사이의 틈을 유약으로 밀봉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그것이다(도 16).<sup>40</sup>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고온소성시 용융된 유약이 공기 중의 산소가 갑발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환원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원률이 높아지면 담청록색의 유색을 띠게 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월요도공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약의  $TiO_2$  함량으로 말미암은 유색 문제를 裝燒工藝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한 셈이다. 절정기의 월요 秘色瓷의 명성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얻어진 것이었다.<sup>41</sup>

하지만 갑발과 갑발의 틈을 유약으로 밀봉할 경우, 소성한 후에 반드시 갑발을 깨뜨려야 기물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방식의 裝燒工藝에 사용된 갑발들은 거의 예외 없이 細質匣鉢이었는데,<sup>42</sup> 이것은 일반 粗質匣鉢에 비하여 생산원가

36 王芬, 『耀州窯陶瓷』(陝西科學技術出版社, 2000), pp. 160-170 <表13-1> 歷代耀州窯靑瓷釉化學組成;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大象出版社, 2008), pp. 209-211 <表1> 清涼寺窯與汝州張公巷窯靑瓷釉的主量化學組成的含量 참조.

37 李家治主編, 앞의 책, pp. 120-122 <表4-2> 越窯歷代靑瓷釉化學組成 참조.

38 李家治主編, 앞의 책, p. 123.

39 李喜寬, 「越窯 秘色瓷의 展開와 匣鉢」, 『美術史學』 24(2010b), pp. 145-146.

40 慈溪市博物館編, 앞의 책, p. 107.

41 李喜寬, 앞의 논문(2010b), pp. 131-139.

42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外, 앞의 책, pp. 353-354.

가 훨씬 높았다. 이러한 갑발의 비용은 고스란히 기물의 생산원가에 반영되고, 기물의 생산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비색자로 대표되는 일부 고급청자를 소성할 때에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그다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다.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북송 조정에 대한 고급월요청자의 貢納量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아울러 당시 지배계급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출량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여 기존의 密封細質匣鉢을 이용한 장소공예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밀봉세질갑발을 포기하고 다시 조질갑발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sup>43</sup> 월요의 유약이 가지고 있던 중대한 결점, 즉 소성 후에 기물의 유색이 흔히 청황색이나 청회색을 띠는 현상이 다시 露呈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전통적인 월요 태토도 결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瓷器 태토의 주성분은  $\text{SiO}_2$ 와  $\text{Al}_2\text{O}_3$ 인데, 월요 태토의 경우,  $\text{SiO}_2$ 가 75-80% 정도,  $\text{Al}_2\text{O}_3$ 가 15-18% 정도 포함되어 있다.<sup>44</sup> 요주요·정요·여요 등 북방 요장의 태토에 60-70% 정도의  $\text{SiO}_2$ 와 20-35% 정도의  $\text{Al}_2\text{O}_3$ 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sup>45</sup> 월요의 태토는 상대적으로  $\text{SiO}_2$ 의 함량이 높고  $\text{Al}_2\text{O}_3$ 의 함량이 낮은 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태토의  $\text{Al}_2\text{O}_3$ 의 함량은 고온소성시 기물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 즉 抗變形力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함량이 높아지면 항변형력도 높아지고, 그 함량이 낮아지면, 항변형력도 낮아진다.

자기를 소성할 때, 고온을 가하면 태토와 유약이 凝結되는 과정에서 기물이 자칫 변형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口徑이 크고 底徑이 작아 무게중심이 기물의 윗부분에 있는 碗·盤과 같은 기물들이나 기벽이 얇은 기물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문양을 깊게 새겨 기벽의 凹凹

<sup>43</sup> 李喜寬, 앞의 논문(2010b), pp. 141-142. 사실 그렇게 크게 증가한 고급월요청자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이윤의 창출로 이어졌다면, 밀봉세질갑발을 포기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송조정에 대한 공납량의 증가가 고급월요청자에 대한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중시하면, 실제로 있어서 그 수요의 증가가 모두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았을 공산이 매우 크다. 북송조정에 대한 대량의 공납용 청자를 생산한 대가로 월요가 그에 합당한 경제적 이윤을 취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뜻이다. 북송의 위협으로부터 오월국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량의 공납용 월요청자를 생산하게 한 오월국의 지배자인 錢俶(忠懿王; 948-978 재위)이 제대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을 성싶지 않기 때문이다. 오월국 통치기, 특히 錢俶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극심했다는 『宋史』 등의 기록에 의거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元脫脫等撰, 『宋史』 卷249 列傳8 「范質傳附 范旻傳」, p. 8797: “(錢)俶在國日, 徭賦繁苛, 凡薪粒·蔬菓·箕箒之屬悉收算, 欲盡釋不取, 以鑷其弊.”). 아마도 그것은 착취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978년에 월요에서 제작된 많은 청자에 보이는 “太平戊寅”銘이 이 해에 오월국이 송에 복속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새겼을 것이라는 견해에 수긍이 가기도 한다(厲祖浩, 「論“太平戊寅”款越窯青瓷」,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p. 164-165).

<sup>44</sup> 李家治主編, 앞의 책, pp. 117-119 〈表4-1〉越窯歷代青釉瓷胎化學組成 참조.

<sup>45</sup> 王芬, 앞의 책, pp. 171-177 〈表13-2〉歷代耀州窯青瓷胎化學組成; 李家治主編, 앞의 책, pp. 152-154 〈表5-2〉邢·鞏·定窯白釉瓷胎化學組成;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pp. 202-204 〈表2〉清涼寺窯與汝州張公巷窯青瓷胎的主量化學組成 참조.

이 심한 경우도 그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변형된 기물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폐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관계에 있던 요주요·정요·여요 등의 기물들에 비해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Al_2O_3$ 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요청자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당-오대시기에 월요는 成形過程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전반적으로 기벽을 두껍게 성형하였다든지, 성형시 구연부는 상대적으로 얇게 한 반면 저부는 두껍게 하였다든지, 굽을 깎을 때 저경을 크게 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문양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sup>47</sup> 施紋으로 인하여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북송시기에 접어들면서 월요의 태토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점차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북방의 요주요나 정요의 경우, 대체로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상대적으로 기벽이 얇아지고 굽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碗과 盞 등의 기종에서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이 시기에 金銀器의 조형을 모방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는데,<sup>48</sup> 그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sup>49</sup> 그리고 문양도 유행하기 시작하여, 요주요의 경우는 북송 초기에 이미 문양을 갖게 새겨 문양효과를 극대화한 剔花技法이 크게 유행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월요의 경우는 북방 요장만큼 현저하지 않다. 월요의 경우도 북송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벽이 얇아지는 경향은 보이지만,<sup>51</sup> 요주요나 정요의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이며, 저경이 작은 기물의 증가도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문양의 경우, 북송 초기에는 문양을 얇고 가늘게 새기는 월요의 독자적인 細線劃花技法의 문양이 유행하였다.<sup>52</sup> 북송 중기부터 刻花技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지만,<sup>5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주요의 경우보다 문양을 얇게 새김으로서 문양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북송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월요청자가 유행에 뒤처지게 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보다도  $Al_2O_3$ 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요 태토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

<sup>46</sup> 이 점은 강진에서 오랫동안 고려청자를 재현해온 李龍熙 선생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sup>47</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외, 앞의 책, p. 361.

<sup>48</sup> 穆青, 『定窯藝術』(河北教育出版社, 2002), p. 66; 陳曉捷, 「耀瓷倣金屬器簡論」, 『中國耀州窯國際學術討論會文集』(三秦出版社, 2005), pp. 78-80.

<sup>49</sup> 羅森(Jessica Rawson), 鄭善萍譯, 「中國銀器對瓷器發展的研究」, 『中國古代的藝術與文化』(北京大學出版社, 2002), p. 265.

<sup>50</sup> 耀州窯址 발굴보고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剔花技法의 문양이 施紋된 이른바 “東窯” 타입의 耀州窯靑瓷가 오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謝明良이 논증한 바에 따르면, 그것들은 북송 초기에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謝明良, 「耀州窯遺址五代靑瓷的年代問題—從所謂“柴窯”談起」, 『故宮學術季刊』 제16권 제2기(1998); 『中國陶瓷史論集』(允晨文化, 2007), pp. 67-74).

<sup>51</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외, 앞의 책, p. 348.

<sup>52</sup> 鄭嘉勳, 「宋代越窯刻劃花裝飾工藝淺析—以碗·盤爲例」,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p. 107-108.

<sup>53</sup> 鄭嘉勳, 앞의 논문, p. 109.



도 17 覆燒法으로 燒成한 定窯碗, 曲陽縣定窯址  
출토, 河北省曲陽縣定窯遺址文物保管所  
『中國定窯』, p. 240)

다. 그렇지만 이렇게 覆燒할 경우, 正燒(仰燒)할 때와 반대로 넓은 구연을 받치고 굽기 때문에 소성 시 기물이 변형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크게 유리하였다. 복송 후기에 접어들어 정요 등에서 기 벽이 더욱 얇은 기물을 소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복소법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기물의 내저면과 外底部에 지지분한 내화토 흔적을 남기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월요의 경우와 같이 갑발에 한 건의 기물을 넣고 正燒할 때보다 가마 안에 훨씬 많은 양의 기물을 적재할 수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가마 안의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요컨대, 복소법은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장소 공예의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복소법은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비 절감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었지만, 사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주로



도 18 龍泉窯碗, 龍泉青瓷博物館『宋金瓷話—五  
館館藏瓷器精品展』, p. 169)

이다. 유행에 뒤쳐진 월요청자가 그러한 유행을 선 도한 요장의 제품들에 비해 瓷器市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편, 대체로 복송 중엽 이후에 중국의 여러 요장에는 전혀 새로운 裝燒工藝가 유행하기 시작하 였는데, 匣鉢이나 支圈을 이용한 覆燒法이 그것이 다(도 17). 이 복소법은 기물을 뒤집어서 소성하기 때문에 구연부의 유약을 닦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소성 후에 유약이 없는 구연부가 거칠고(芒口) 아울 러 美觀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 들은 구연부에 금속테를 씌워서 사용하기도 하였

백자와 청백자 요장에서만 채택되었다. 월요와 경 쟁관계에 있던 정요와 경덕진요가 그 대표적인 요 장이다. 월요를 비롯한 청자 요장에서 그러한 복소 법이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청자 태토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자의 경우 구연부 의 유약을 닦아내면, 그 면은 소성 후에 일반적으로 赤褐色을 띠기 때문에 청자의 유색과 두드러지게 구분되어 美觀을 크게 해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도 18). 반면에 백자나 청백자의 경우는 구연부의



도 19 定窯芒口盤, 北京市海澱區南辛庄 출토, 北京市海澱區博物館(『中國定窯』, p. 174)

유약을 닦아낸 채로 覆燒를 하여도 구연부와 유약을 닦아내지 않은 면의 색상의 차이가 청자의 경우처럼 두드러지지 않아 그다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도 19). 이러한 차이점이 백자와 청백자 요장에서 적극적으로 복소법을 채택한 반면 청자 요장에서는 그것을 기피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복소법을 채택한 정요와 경덕진요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기벽이 얇고 품질이 높은 기물들을 대량생산할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하였던 월요가 그러한 요장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라.

게다가 북송 중엽경에 정요와 요주요와 같은 북방요장에는 획기적인 燒成技法上的 변화가 있었다. 석탄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sup>54</sup> 이 이전에는 남방의 요장이나 북방의 요장이나 모두 柴木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남방 지역은 山林이 풍부하여 柴木을 조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산림이 풍부하지 않은 북방지역에서는 시목의 조달이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목의 조달은 월요와 같은 남방지역 요장의 요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방지역의 풍부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월요는 연료 조달의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상대적 우월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셈이다.

요컨대, 월요를 소멸로 이끈 핵심적인 요인들은 무엇보다도 월요의 태토와 유약의 결합에서 胚胎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월요의 전개과정에서 태토와 유약의 성분구성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결합은 이미 開窯할 때부터 월요의 태토와 유약이 안고 있던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그 결합이 대략 오대시기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후 요업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결합들로 말미암은 문제점들이 시기를 같이하거나 달리하여 노정되기 시작하였는

<sup>54</sup> 정요의 경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북송 중기를 전후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劉濤, 『宋遼金紀年瓷器』(文物出版社, 2004), pp. 5-6; 李鑫, 『定窯分期研究』北京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2012), p. 259). 요주요의 경우 耀州窯址의 발굴보고자는 북송시기에 접어들면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文物出版社, 1998), p. 556), 북송 초기에 제작된 이른바 “東窯” 타입 청자 등의 유색을 통하여 볼 때, 이 시기에도 아직 柴木을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기물들에는 석탄을 사용하여 소성한 기물들의 유색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 즉 유색에 황갈색 계통의 기운이 감도는 현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주요의 경우도 정요와 마찬가지로 북송 중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월요의 태토와 유약보다  $Al_2O_3$ 의 함량이 높은 태토와  $TiO_2$  함량이 낮은 유약을 개발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태토와 유약의 재료는 요장의 주위에서 채취하게 마련이고, 그것들은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sup>55</sup> 새로운 태토와 유약을 개발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아무튼 그렇게 노정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월요가 다른 요장들과의 경쟁구도에서 점점 뒤처지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다. 그 사실상의 중착점이 북송 후기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古銀錠湖畔의 몇몇 요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월요요장들이 이 시기에 閉窯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 IV. 餘言

#### —南宋時期的越窯에 대한斷想—

월요는 이미 북송 후기에 거의 枯死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만, 남송시기에 접어든 후에도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더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월요요장에서 전통적인 월요청자와 더불어 그것과 크게 다른 풍격의 이색적인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저령두유형”의 한 부류인 “관요형산품”이 그것이다.

“관요형산품”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釉가 전통적인 월요청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天青色·粉青色·月白色 등을 띠며 失透性이 강하다. 유의 색깔과 질감의 측면에서 볼 때, 여요나 남송관요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월요의 유약보다  $TiO_2$  함량이 크게 낮은(0-0.13%) 새로운 유약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56</sup> 월요가 개요부터 줄곧  $TiO_2$  함량이 비교적 높은 유약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요와 남송관요도 이와 같이  $TiO_2$  함량이 낮은 유약을 사용하였다. 한편, “관요형산품”은 전통적인 월요청자의 경우보다 유층이 두꺼우며, 그 가운데에는 유약을 두 번 이상 입힌 것들도 있

<sup>55</sup> 예컨대, 남송관요가 성립되기 전에는 남방과 북방의 窯場에서 사용한 태토와 유약의 화학성분구성이 현저하게 다른데, 그 주요 원인은 2.49-2.1億年 전에 합쳐진 남방과 북방의 板臺의 지질학적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武德(Nigei Wood) 등, 『早期耀州青瓷和南宋老虎洞窯의 技術關係』,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浙江大學出版社, 2004), pp. 191-192 참조.

<sup>56</sup> 朱守梅, 『南宋低嶺頭窯青瓷與傳統越窯青瓷和汝瓷關係的研究』, 『考古與文物』2008년 제5기, pp. 93-94.

다.<sup>57</sup>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 시기에 월요에서 초별구이법이 채용되었음을 의미한다.<sup>58</sup> 월요가 북송시기까지 일관되게 초별구이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자를 소성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 역시 괄목할만한 기술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관요형산품”이 북송의 여요자기나 북송관요자기를 계승한 것으로 파악한다.<sup>59</sup> 그리고 이 “관요형산품”의 제작기술이 남송관요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고 믿는다.<sup>60</sup>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한 연구자도 있다. 그는 오히려 “관요형산품”이 남송관요자기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1</sup> 사실 이러한 “관요형산품”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요 및 북송관요의 자기제작기술이 월요나 남송관요에 전파된 과정 및 경로뿐만 아니라 남송관요의 설립과 전개 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관요형산품”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송시기의 궁정용월요청자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관요형산품”의 생산이 월요의 운명을 돌려놓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남송시기에 월요에서 제작한 궁정용청자의 파편들이 항주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그 가운데 그것들이 궁정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명문들이 外底部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명문이 있는 파편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관요형산품”은 지극히 희소하고, 그 대부분이 전통적인 월요청자들인데,<sup>62</sup> 후자의 경우 정교한 劃花紋이 새겨져 있고 품질이 매우 높아 북송 초기의 비색자와 흡사하다. 만약 “관요형산품”의 생산이 성공적이어서 만족할만한 품질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관요형산품”이 남송조정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른다면<sup>63</sup>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浙江省博物館·慈溪市博物館·北京大學博物館·鴻禧美術館 등에 소장되어 있는 “관요형산품”의 표본들도, 유약의 안정성이나 제작기법 등의 측면에서 청량사여요지 출토품이나 남송관요지 출토품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57 沈岳明, 앞의 논문(1997), p. 85.

58 多次施釉와 초별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喜寬, 「南宋官窯瓷器與「極其精緻」·「出色瑩徹」—有關南宋官窯瓷器的製作技術的幾個問題」, 『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 제30기(2011), pp. 54-62 참조.

59 陸明華, 「越窯汝官窯和修內司官窯相關問題再議」,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2002), pp. 180-182; 周麗麗, 앞의 논문, p. 58.

60 沈岳明, 앞의 논문(2004), pp. 81-84.

61 權奎山, 앞의 논문, pp. 50-52.

62 현재까지 항주에서 발견된 銘文이 있는 남송궁정용월요청자 가운데 “官窯型產品”은 “皇后閣”銘이 있는 大盤의 殘片 1 점뿐이고(金志偉·陳滬慶, 「低嶺頭官窯型產品」研討, 『05古陶瓷科學技術國際討論會論文集』(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p. 413), 그 나머지는 모두 전통적인 월요청자들이다.

63 陸明華, 앞의 논문, pp. 181-182.

떨어지는 편이다. 이와 같이 “관요형산품”의 생산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남송시기에 월요에서 있었던 기술적 변화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북송 말기 이후 청자는 점차 그 釉가 천청색·분청색·월백색 등을 띠고 유층이 두꺼우며 실투성이 강한 부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여요자기와 남송관요자기, 그리고 요주요의 월백유자기 및 용천요의 분청유자기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청자를 선호했음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볼 때, “관요형산품”의 생산이 제대로 本軌道에 오르지 못하면서 월요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動力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한다. 남송 중엽경 월요가 소멸할 무렵에 당시 사람들이 선호한 남송관요풍의 청자의 생산에 주력한 용천요가 월요의 뒤를 이어 최대의 청자요장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실감나게 입증한다.

\*주제어(Key Words)\_월요(越窯, Yue Kiln), 소멸시기(消滅時期, time of Yue kiln's disappearance), 소멸원인(消滅原因, cause of Yue kiln's disappearance), 유약(釉藥, glaze), 태토(胎土, clay)

■ 투고일 2013년 9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28일 ■

## 참고문헌

### 1. 史料

- [元]陶宗儀撰,『南村輟耕錄』,元明史料筆記叢刊本,中華書局,1959.
- [清]徐松輯,『宋會要輯稿』,中華書局,1957.
- [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雲麓漫鈔』,唐宋史料筆記叢刊本,中華書局,1996.
- [元]脫脫等撰,『宋史』,中華書局標點本,新華書店上海發行所,1977.

### 2. 圖錄 및 報告書

- 杜正賢主編,『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文物出版社,2002.
-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宋代耀州窯址』,文物出版社,1998.
-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編著,『遂寧金魚村南宋窯藏』上冊,文物出版社,2012.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外,『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2002.
- 朱伯謙主編,『龍泉窯青瓷』,藝術家出版社,1998.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寶豐清涼寺汝窯』,大象出版社,2008.
- 杭州南宋官窯博物館編,『清·雅—南宋瓷器精品』,中華書局,2010.

### 3. 論著

- 李喜寬,「越窯 秘色瓷의 展開와 匣鉢」,『美術史學』24, 2010.
- 金志偉,「“進”字款越瓷考證」,『故宮博物院院刊』2005년 제2기.
- 金志偉·陳滬慶,「低嶺頭官窯型產品」研討,『05古陶瓷科學技術6國際討論會論文集』,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 金志偉·胡雲法,「南宋官窯刻款瓷器研究淺見」,『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2004.
- 金志偉·胡雲法·金軍,「南宋宮廷所用越瓷的幾個問題」,『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權奎山,「試論越窯的衰落」,『故宮博物院院刊』2003년 제5기, 紫禁城出版社.
- 羅森(Jessica Rawson), 鄭善萍 譯,「中國銀器對瓷器發展的研究」,『中國古代的藝術與文化』,北京大學出版社, 2002.
- 唐焯,「試論唐宋越窯的性質」,『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穆青,『定窯藝術』,河北教育出版社,2002.
- 武德(Nigei Wood) 등,「早期耀州青瓷和南宋老虎洞窯的技術關係」,『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浙江大學出版社,2004.

- 白亞松,「試析越窯衰落的原因」,『陶瓷學報』제32권 제2기, 2011.
- 謝明良,「耀州窯遺址五代青瓷的年代問題—從所謂「柴窯」談起」,『故宮學術季刊』제16권 제2기, 1998:『中國陶瓷史論集』,允晨文化, 2007.
- 四川城文物管理委員會,「四川簡陽東溪園藝場元墓」,『文物』1987년 제2기.
- 森達也,「元代龍泉窯的分期研究」,『故宮學術季刊』제29권 제1기, 2002.
- 徐吉軍,『南宋都城臨安』,杭州出版社, 2008.
- 徐定寶,「越窯青瓷衰落的主因」,『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2년 제6기.
- 沈岳明,「修內司窯的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中國古陶瓷研究』제4집, 1997.
- 沈岳明,「越窯概論」,『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沈岳明,「低嶺頭類型再認識」,『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 厲祖浩,「論“太平戊寅”款越窯青瓷」,『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王芬,『耀州窯陶瓷』,陝西科學技術出版社, 2000.
- 劉濤,『宋遼金紀年瓷器』,文物出版社, 2004.
- 陸明華,「越窯做汝官瓷和修內司官窯相關問題再議」,『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李家治主編,『中國科學技術史』,陶瓷卷,科學出版社, 1998.
- 李剛,「論越窯衰落與龍泉窯興起」,『越窯論集』,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88.
- 李鑫,「定窯分期研究」,北京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12.
- 李喜寬,「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故宮博物院院刊』2009년 제3기.
- 李喜寬,「南宋前期官窯新探」,『東方博物』제35집, 2010.
- 李喜寬,「南宋官窯瓷器與「極其精緻」·「油色瑩徹」—有關南宋官窯瓷器的製作技術的幾個問題」,『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제30기, 2011.
- 林士民,「越窯衰落原因的探索」,『2007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文物出版社, 2008.
- 慈溪市博物館編,『上林湖越窯』,科學出版社, 2002.
- 鄭嘉勳,「宋代越窯刻劃花裝飾工藝淺析—以碗·盤為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鄭建華,「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 周麗麗,「關於越窯盛燒·衰弱及其形成原因的幾點認識」,『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제5집, 2002.
- 朱守梅,「南宋低嶺頭窯青瓷與傳統越窯青瓷和汝瓷關係的研究」,『考古與文物』2008년 제5기.
- 陳曉捷,「耀瓷做金屬器簡論」,『中國耀州窯國際學術討論會文集』,三秦出版社, 2005.
- 胡雲法·金志偉,「定窯白瓷銘文與南宋宮廷用瓷之我見」,『中國古代白瓷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上海書畫出版社, 2005.

## 국문초록

越窯는 後漢代에서 宋代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秘色 甌를 생산한 窯場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월요가 남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의 어느 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 졌다. 본 연구는 월요의 소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각별히 그 구체적인 시기와 원인을 검토한 것 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월요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雲麓漫鈔』와 『坦齋筆衡』에 보이는 월요와 관련된 기록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전자를 신뢰하는 연구자들은 남송 중엽에, 후자를 신뢰하는 연구자 들은 남송 초기에 월요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것들이 월 요의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자 료에 의거할 경우, 그 소멸시기는 남송 중엽경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월요 소멸의 원인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결과론적인 해석의 범주를 넘어선다 고 보기 힘들다. 월요 소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요의 소멸을 瓷器의 需要와 供給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 월요가 다른 많은 窯場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월요가 소멸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釉藥과 胎土와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TiO_2$  함량이 비교적 높은 월요의 유약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淡靑綠色 계통의 釉色을 얻기 힘든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Al_2O_3$ 의 함량이 낮은 태토도 高溫燒成時 抗變形力이 낮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략 五代時期까지 월요는 각각 裝燒工藝와 成形技法의 개선을 통하여 유약과 태토 의 결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冶煉環境이 변화되면서 그러한 결점들 로 말미암은 문제점들이 점차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러한 결점이 없는 새로운 유약과 태토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요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노정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한 월요는 다른 요장들과의 경쟁구도에서 점점 뒤쳐져서 북송 후기에는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쇠 락하였으며, 결국 남송 중엽경에 이르러 소멸하게 되었다.

## Abstract

#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Yue Kiln(越窯) in China

Lee Hee-gwan \*

The Yue Kiln was in operation for about one thousand years from the later Han Dynasty to the Song Dynasty. It was famous for the production of Misesi Celadon(秘色瓷). However, the kiln disappeared for some reason during the Southern Song Period. This study examines when and why it disappeared.

Many researchers have depended on records contained in the books *Yunlumanchao* (雲麓漫鈔) and *Tanzhaibiheng*(坦齋筆衡) when searching for clues to the disappearance of the Yue kiln. Researchers who placed their trust in *Yunlumanchao* believed that the kiln disappeared in the mid-Southern Song period, while those who placed their trust in *Tanzhaibiheng* believed that the kiln disappeared in the early Southern Song Period. However, upon perusing such records, it becomes clear that they are not very useful materials for analyzing the causes of the kiln's disappearance. Other more relevant archaeological materials may help determine whether the Yue kiln is most likely to have disappeared in the mid-Southern Song Period.

There are many views about the causes of the Yue kiln's disappearance, most of which are based on the method of result-based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Yue celadon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 Yue kiln's disappearance. It is also necessary to remember that the kiln vied commercially

---

\* Former Chief Curator of Horim Museum

with other kilns. However, a fundamental cause of its disappearance i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the glaze and clay used to make celadon. The glaze used at the Yue kiln had a relatively high titanium dioxide ( $\text{TiO}_2$ ) content, which meant that the glaze was not the right material for producing the pale bluish green color favored by influential people of that time. Meanwhile, the clay used to make celadon at the Yue kiln had a relatively low aluminum oxide ( $\text{Al}_2\text{O}_3$ ) content, which meant that its resistance ability was low during the high-temperature firing process. The Yue kiln could make up for th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glaze and soil to some ext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Zhuangshaoz*(裝燒) and molding techniques until the Wudai Period (五代).

However, by the start of the Northern Song Period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production of porcelain had changed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disadvantages were revealed one by one. The development of a new glaze and a new clay was a way of solving the problems fundamentally. However, such a development was not without difficulties, as it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in which the Yue kiln was located. As a result of these problems the Yue kiln had fallen behind rival kilns to an irrecoverable extent by the late Northern Song Period, and is thought to have finally disappeared by the mid-Southern Song period.